2004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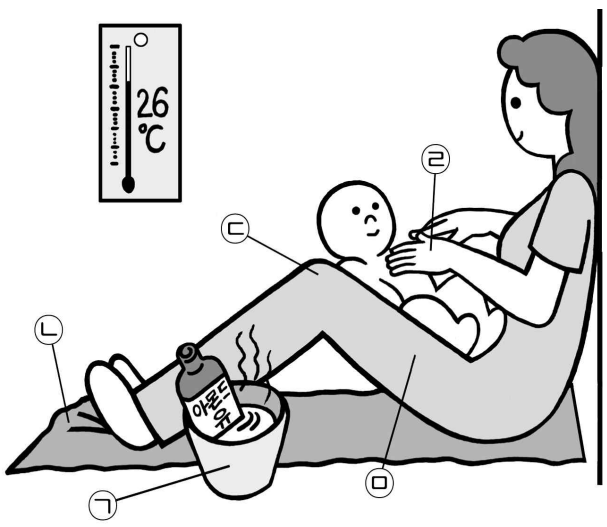
언어 영역

제 1 교시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1 | | | | |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밤톨이의 태도를 비판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① 대부분의 변명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②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
③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항상 적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④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⑤ 어떤 일이든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3.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기자의 질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점]
① 첫 번째 질문 ② 두 번째 질문 ③ 세 번째 질문
④ 네 번째 질문 ⑤ 다섯 번째 질문

4. 이 사연의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①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비결
② 전원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여유
③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④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의 중요성
⑤ 순리(順理)에 따라 사는 삶의 자세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토론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터넷 소설도 소설로 볼 수 있는가?
② 인터넷 소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③ 인터넷 소설은 독서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④ 인터넷 소설의 상업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⑤ 인터넷 소설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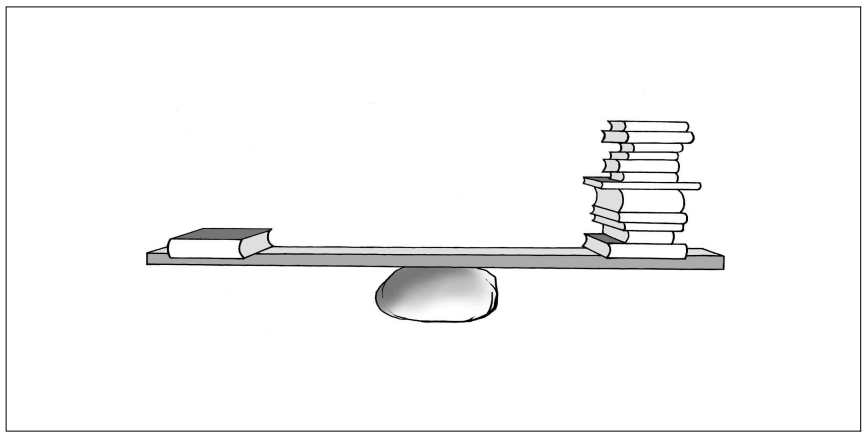
6. 여학생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ㄱ. 상대방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ㄴ.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여 절충하려 한다.
ㄷ.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다.
ㄹ.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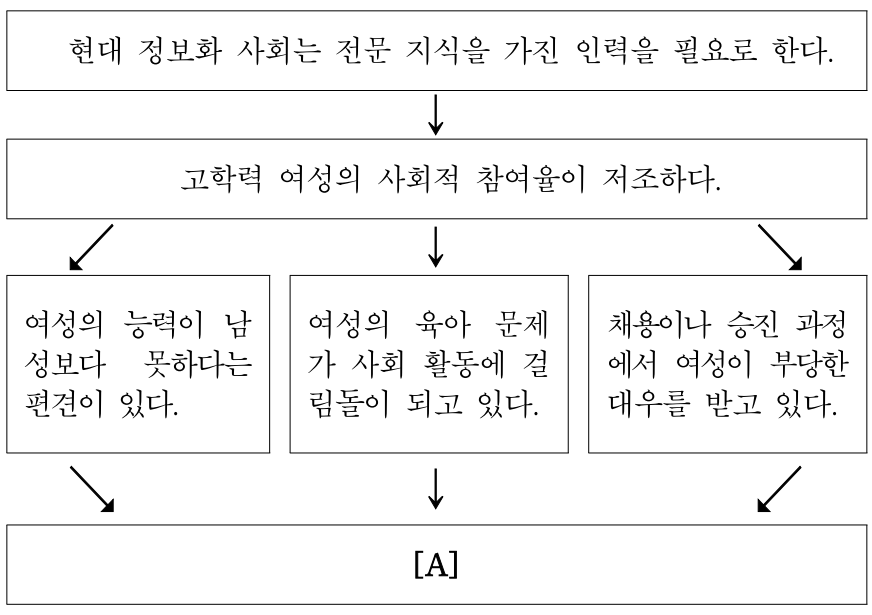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글을 쓰기 위해 그림을 보고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학생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선생님 → 수십 권의 책보다 한 권의 양서가 중요하다.
②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학자 → 미래 사회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질이 중요하다.
③ 신입 사원들에게 강연하는 연사 → 성공을 원한다면 고정관념을 깨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④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상담원 →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⑤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경영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특화된 전략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8.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고를 전개하였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직장 내 보육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② 능력을 중시하는 승진 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③ 남녀 고용 평등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④ 여성 전용 상품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⑤ 양성 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9. 다음 시를 <조건>에 맞게 수필로 바꿔 쓸 때, 글의 첫머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유배지에서 아내의 상을 당하여(配所輓妻喪)

어찌하면 저승의 월로*에게 애원하여 (那將月老訟冥司)
다음 생에 그대는 지아비 되고 나는 지어미 될까 (來世夫妻易地爲)
나 죽고 그대 살아 천 리 밖에 있어야 한다면 (我死君生千里外)
이 내 슬픈 맘 그대 알리라. (使君知我此心悲)

* 월로 : 월하노인.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

<조건> 1. 시의 정서를 유지할 것
2. 계절감을 드러낼 것
3.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① 오랜만에 한가로이 산보에 나섰다. 서쪽 하늘에서 고운 노을빛이 다가오니 단풍은 수줍어서 고개를 돌린다. 아내의 죽음이 일으켰던 내 마음의 파문도 어느 새 잔잔해졌나 보다.
② 아내가 이젠 한 평 잠자리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라는데 나는 이 슬프고 외로운 날에 비로소 가장 가난한 남자가 되었구나.
③ 아침부터 까치소리가 귓전에 요란하다. 이 척박한 유배지에 누가 찾아오려는 것일까? 이 더위를 식혀 줄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을지. 까악까악 까치소리가 즐거운 음악 소리이다.
④ 저 달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파리하게 앓고 있구나.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굴 듯하다. 잊을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있는 하늘 나라에도 이렇게 가슴 시린 눈이 내리고 있소?
⑤ 한 떨기 난초 같던 아내, 언제까지나 내 곁에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 아프게 하며 하늘로 떠났다. 늘 함께 보내던 계절들도 앞으로는 나 홀로 맞이하게 내버려두고.

10. ㉠~㉢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보 기 >

○ 마라톤의 기록 (㉠)은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의 (㉡)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위헌 법률 조항의 (㉢)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	㉡	㉢
①	경신(更新)	오용(誤用)	개정(改正)
②	경신(更新)	남용(濫用)	개정(改正)
③	경신(更新)	남용(濫用)	개선(改善)
④	갱신(更新)	남용(濫用)	개정(改正)
⑤	갱신(更新)	오용(誤用)	개선(改善)

11. <보기>와 같이 개요를 구상한 뒤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더 첨하였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 목 : 주5일 근무제의 효율적 활용

Ⅰ. 서 론 : 실태 및 현황

Ⅱ. 본 론

1.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의미
2.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가. 주5일 근무제의 장점
   나. 주5일 근무제의 단점
3. 주5일 근무제의 활용 방안

Ⅲ. 결 론 : 요약 및 정리

<자료1>

·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주5일 근무제는 노동과 생산성을 중시하던 근로형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여가형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 교수

㉡ 주5일 근무제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관광·레저 사업을 새로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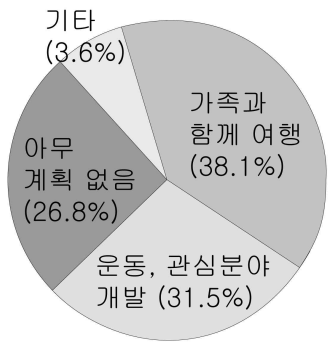
- ○○○ 사업가

㉢ 주5일 근무제로 주중 업무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주말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 ○○○ 회사원

<자료2>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① 본론 1에 <자료1>의 ㉠을 참고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킨다.

② 본론 2-가에 <자료1>의 ㉡을 참고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 참여로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③ 본론 2-나에 <자료1>의 ㉢을 참고하여 주5일 근무제가 주중 업무량의 증가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④ 본론 3에 <자료2>를 참고하여 내실 있는 여가 생활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⑤ 결론에 <자료1>-㉠과 <자료2>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여가 활동의 조기 정착을 강조한다.

12. <보기>는 '시사 토론' 동아리 홍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교 토론 문화의 문제와 방향

요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존중되는 학교에서는 아직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잘하던 못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이 우리 학교 토론 문화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검토 사항	고쳐쓰기 방안
①	제목은 적절한가?	· 중심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자'로 수정한다.
②	어휘는 적절한가?	· '계기', '참석'은 의미상 부적절하므로 '기회', '참여'로 고친다.
③	맞춤법 규정은 지키고 있는가?	· '토론을 잘하던 못하던'은 '토론을 잘하든 못하든'으로 고친다.
④	내용상 보충할 부분은 없는가?	· '토론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충한다.
⑤	논리적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 세 번째 문단의 접속사 '그래서'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13.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범한 것은? [1점]

< 보 기 >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① 이것은 나의 책이오, 저것은 그의 연필이다.
② 도서관에서 얼굴이 예쁜 그의 누나를 만났다.
③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하영이를 만났다.
④ 나는 휴가 때 할머니를 데리고 온천에 가기로 했다.
⑤ 그 사람은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별로 변한 것 같다.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 국어의 의문사에는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무슨, 어떻게' 등이 있는데, 이런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u>의문사 본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특정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u>.

① 영수야, 혜리는 <u>어디</u> 가고 없니?
② 야, 네가 나한테 <u>어떻게</u> 그럴 수 있니?
③ 엄마, 학은 <u>왜</u> 한 다리를 들고 서 있지?
④ 여러분, <u>누가</u> 먼저 이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⑤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오늘 <u>무슨</u> 일이 일어났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끝에 **호롱불** 야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머언 곳에 여인(女人)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雪夜) —

(나)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콩기름 불
실고추처럼 가늘게 피어나던 밤

파묻은 불씨를 헤쳐
잎담배를 피우며

"고놈, 눈동자가 초롱 같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바깥엔 연방 눈이 내리고
오늘밤처럼 **눈**이 내리고.

다만 이제 나 홀로
눈을 밟으며 간다.

오우버 자락에
구수한 할머니의 옛 얘기를 싸고,
어린 시절의 그 눈을 밟으며 간다.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 김용호, 눈 오는 밤에 —

(다)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겨울 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내 몸이 으스스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 정호승, 겨울 강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내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애가 나타나 있다.
④ 현실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이상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⑤ 긍정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16. ⓐ~ⓔ 중, 비유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나)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1연에서의 '질화로'는 향토적 소재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
B : '질화로'에서 환기되는 정서는 '밤알', '콩기름 불', '실고추' '잎담배' 등의 소재로 이어져 독자로 하여금 더욱 정겨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어.---------- ⓑ
A :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향토적 소재는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B : 맞아, 5연에서 홀로 눈을 밟고 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면 고독하고 메마른 자신의 현실적 여건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 ---------- ⓓ
A : 1연과 7연의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현실과 대비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확실해. ------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나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 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① (다)화자 : 현실은 겨울 강에서 세차게 부는 눈보라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② <보기>화자 : 이해는 합니다만, 흘러가는 강물 속에 삽을 씻으며 슬픔도 퍼다 버릴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③ (다)화자 : 그럼요. 새들도 보이지 않고 강물도 흘러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절망적 상황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④ <보기>화자 : 그러시군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절망감이 더욱 커지겠지요. 저는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동네로 돌아가곤 하지요.

⑤ (다)화자 :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면 언젠가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항상 청산과 같은 이상향에서 살고자 한답니다.

19. (가)~(다)의 시어 중,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서리 하늘에 달 밝은데 은하수 빛나
이국땅 머무는 나그네 귀향 생각 깊도다.
긴긴 밤 홀로 앉아 시름 이기지 못하는데
홀연 들리나니 이웃 아낙 다듬이 소리
바람결 따라 끊일 듯 이어지며
별들이 기울도록 잠시도 멎지 않네.
고국을 떠난 후로 저 소리 못 듣더니
먼 이역 땅에서 그 소리 다시 듣네.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① 호롱불 ② 실고추 ③ 눈
④ 갈대 ⑤ 강물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진로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 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빡의 눈깔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짝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 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 여덟 병의 진로 소주를 넋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혹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훔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훼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혹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 ㉠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런가, 혹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혹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A] 혹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 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고 투시해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2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서술자가 장면 전환과 함께 바뀌고 있다.
②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대화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와 서술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21. <보기>는 위 글에 대한 독서 토론 수업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선생님 : 상당히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학 생 : _____

① 소외 계층을 외면하는 비정한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과거로부터 이어온 삶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혈육의 정으로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④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를 통해 성장기의 아픔과 성숙의 과정을 그리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⑤ 성장기의 체험을 회상하며 잊혀진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22. [A]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고개를 약간 숙인 그네의 모습에서는 열여덟 살 새 신부의 수줍음과 다감한 풋내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위엄이 번져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네의 골격 때문인지도 몰랐다. - 최명희, 혼불 -
② 큰오빠는, 신화를 창조하며 여섯 동생을 가르쳤던 큰오빠는 이미 한 시대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십오 년 전에는 젊고 잘 생긴 청년이었던 그가 벌써 쉰 살의 나이로 늙어 가고 있었다. - 양귀자, 한계령 -
③ 나는 나부터 살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어야 하는 것이다. - 최서해, 탈출기 -
④ 내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먹을 게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아,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는고 하니, 내참 기가 막혀! - 채만식, 치숙 -
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 윤흥길, 장마 -

23.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등장 인물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②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 갈등을 유발한다.
③ 유년의 기억을 회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④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⑤ 삶의 고통을 상징하며 인간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

24.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와 같이 희곡으로 구성해 보았다. 사건 전개상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나는 혹부리 영감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나 : (용기를 내어) 예, 맞아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혹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는다.

영 감 : ⓐ <u>(차갑게) 아무리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 쪽을 향해) 내레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갔어.</u>

아버지 : ⓑ <u>(따지듯이) 아니죠. 피차 일반이니 철없는 짓이라 할 수 없지…….</u>

혹부리 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챈다.

영 감 : ⓒ <u>(단호하게) 아니……,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봬 주라우.</u>

아버지 : ⓓ <u>(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호되게라믄……어떠케?</u>

영 감 : ⓔ <u>(야멸치게 쏘아붙이며) 이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믄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u>

① ⓐ ② ⓑ ③ ⓒ ④ ⓓ ⑤ ⓔ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3빌딩과 같은 빌딩은 어떻게 강풍이나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풀어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주요 세 가지 개념이 곧 압축력(壓縮力), 인장력(引張力), 벤딩모멘트(bending moment)이다. 압축력은 부재(部材)*에 길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고, 인장력은 재료를 잡아당기는 힘이며, 벤딩모멘트는 부재를 휘려고 하는 힘이다.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무릎 관절은 압축력을 받게 되고,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팔꿈치 관절은 인장력을 받게 된다. 다이빙 선수가 보드의 끝에 서게 되면 보드는 휘게 되는데 바로 벤딩모멘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압축력은 건물의 위층, 또는 지붕의 하중(荷重)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하중(荷重)이 커질수록 기둥의 굵기 역시 커져야 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30층의 건물이라면 30층에 있는 기둥보다 1층에 있는 기둥이 더 굵어야 한다. 주어진 기둥의 크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하중이 실리면 당연히 건물이 무너진다. 즉 기둥에 주어지는 압축력이 기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 기둥이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압축력을 받는 부재들은 길이가 길어지면 파괴 강도가 요구하는 것보다 굵은 재료가 사용된다. 그 결과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은 많아지고 건물은 더 무겁고 둔하게 보이는 것이다.

건물의 압축력을 완화시키는 데 응용되는 힘이 인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자는 휘게 되겠지만 자를 양끝으로 세게 잡아당겼을 경우에는 자는 멀쩡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장력에 의해 버클링(힘에 의해 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장력을 받는 부재들은 꼭 필요한 강도만큼의 굵기만 사용하면 된다. 아무리 부재의 길이가 길어도 관계가 없다. 줄과 같이 압축에 저항력을 갖지 못한 부재들은 압축력에는 전혀 저항할 수 없지만 인장력에는 꽤 쓸모 있게 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 상판을 긴 줄로 이어 당겨주는 사장교나 현수교 같은 교량은 줄의 인장력으로 다리 상판의 압축력을 완화시킨 경우이다.

벤딩모멘트는 부재를 휘려고 하는 힘인데, 플라스틱 자를 한 손에 잡고 옆으로 당겼을 경우 자가 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낚싯대에 고기가 걸리면 낚싯대가 휘게 될 경우 낚싯대가 지탱해야 하는 힘을 벤딩모멘트라고 한다. 이러한 벤딩모멘트의 특징은 부재의 길이와 지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다이빙보드의 끝에 선수가 섰을 때 길이가 긴 보드는 짧은 것보다 더 많이 휜다. 또한 같은 길이의 부재라도 지지점에 가까울수록 벤딩모멘트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낚싯대의 벤딩모멘트는 낚시꾼이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이 굵게 제작되는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불 경우를 대비하여 빌딩이나 건축물도 이런 원리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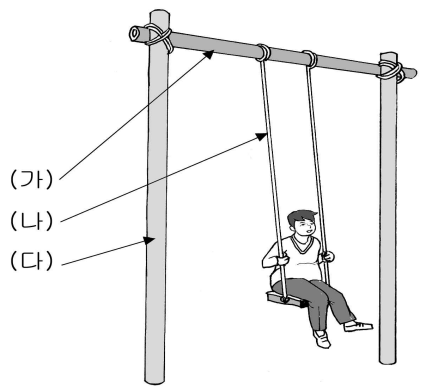
이상의 세 가지 힘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가 달라지고 건축에 소요되는 재료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63빌딩의 날렵한 모습은 바로 이런 힘이 역학적으로 조화되어 건축되었기에 세찬 바람에도 의연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다.

*부재(部材) : 철재 목재 등 구조물에 쓰이는 재료.

25.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① 벤딩모멘트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② 건물의 높이와 압축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③ 건물의 모양과 인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④ 건물에서 압축력과 인장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⑤ 인장력이 발생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 (나), (다)에 작용하는 힘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나)	(다)
①	인장력	압축력	벤딩모멘트
②	압축력	인장력	벤딩모멘트
③	인장력	벤딩모멘트	압축력
④	벤딩모멘트	인장력	압축력
⑤	벤딩모멘트	압축력	인장력

27.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치'와 의미가 다른 것은?

< 보 기 >

치[1](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값'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치[2] 『일부 명사 또는 명사형 뒤에 붙어』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①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② 월별 해외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③ 성적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 기분이 좋았다.
④ 한국인 신장의 평균치는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⑤ 장맛비로 무너진 건물은 한 마디로 날림치였다.

28. 위 글의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빌딩과 빌딩을 연결시킨다.
② 대부분의 도시 빌딩은 직육면체의 모양으로 지어진다.
③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④ 건물의 기둥은 주로 둥근 원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⑤ 고층 건물의 경우 윗부분으로 갈수록 모양을 가늘게 설계한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 종교사에 나타나는 종교적 신념 체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는 시대 정신과 신념 체계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힐 수 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의 주된 관심사와 논리적 태도를 살펴보자.

먼저 ㉠기복형(祈福型)은 그 관심이 질병이나 재앙과 같은 현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사유 체계에서는 삶의 이상이 바로 현세적 조건에 놓여진다. 현세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삶은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복 행위는 비록 내세의 일을 빈다 할지라도 내세의 이상적 조건을 현세의 조건에서 유추한다. 이와 같은 기복사상은 현세적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히 현실 조건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주술적 기복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利己的) 성격을 지니며 행위자의 내면적 덕성의 함양은 그 관심 밖에 머무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도형(求道型)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제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사상 체계에서는 현실적 조건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세적 조건들을 재해석한다. 그 결과 우주와 사회와 인간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 이른바 우주관(宇宙觀)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전인적(全人的) 이상과 진리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도자에게 극기(克己)와 고행(苦行)이 요구된다. 또한 고행은 그의 실천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전인적 목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구도자의 주된 관심은 전인적 이상과 진리의 실천이며 세속적 일들과 사회적 사건은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

끝으로 ㉢개벽형(開闢型)은 이상 세계의 도래를 기대하며 그 때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 세계가 오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문제들과 개인 생존의 어려움이 모두 일거에 해결된다고 믿는다. 현재의 사회 조건과 이상적 황금 시대의 조건과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새시대의 도래는 극적이며 새시대의 개벽(開闢)은 더 장엄하고 그 충격은 더 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개벽 사상(開闢思想)은 사회의 본질적 변혁을 추구하는 개혁 의지와 이상 사회에 대한 집단적 꿈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개벽 사상에서는 주술적 생존 동기나 구도적 고행주의는 한낱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덕목으로 여겨질 뿐이다. 개벽 사상은 한마디로 난세의 철학이며 난세를 준비하는 혁명 사상인 것이다.

한 종교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세 유형의 신념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특별히 강조되거나 둘 또는 세 개의 유형이 동시에 강조되어 그 사상의 지배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복(祈福), 구도(求道), 개벽(開闢)의 삼대 동기는 사실 인간의 종교적 염원의 삼대 범주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삼대 동기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조화된 종교 사상을 이루게 된다.

29.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글이다.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종교는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② 종교와 인간의 본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③ 종교는 인간의 신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④ 종교는 인간의 이상을 얼마만큼 실현시킬 수 있는가?
⑤ 종교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복형은 현세적 조건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념 체계이다.
② 윤리적, 도덕적 덕성의 함양은 신념 체계의 공통된 목표이다.
③ 구도형은 우주와 사회와 인간이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④ 개벽형은 현실의 문제와 이상 세계의 괴리감에 대한 각성을 기반으로 한다.
⑤ 인간의 삶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신념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31. ㉠, ㉡,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 :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정도령이 도래한다는 <정감록>의 내용을 믿으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② ㉠ : 현세의 업은 반드시 윤회된다는 믿음으로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③ ㉡ : 수험생을 둔 어머니가 자식의 합격을 기원하며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드렸다.
④ ㉡ : 수도자는 정신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무릅쓰고 고행의 길을 떠났다.
⑤ ㉢ : 옛날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농사가 어려울 때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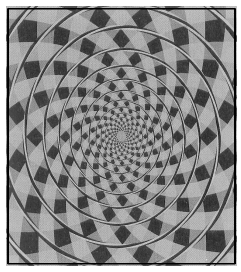


시베리아의 어느 마을은 물오리를 조상신으로 섬기며 긴 소나무 장대에 정교하게 깎은 물오리를 중심으로 마을 축제를 벌인다. 오리는 집을 지켜주는 가장이며, 조상의 현신(現身)이며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중개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솟대라는 것이 있다. 마을 입구 등에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새를 달아 마을의 안녕과 수호, 풍농(豐農)을 기원했다.

① 인간의 삶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군.
② 현실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군.
③ 기복 사상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군.
④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 사회를 꿈꾸는군.
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 종교적 대상이 되는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은 인간의 심리를 적극 활용한다.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심리도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술과 인간 심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 ㉠사람들은 쉽게 나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선은 나사 모양으로 된 선이나 형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소용돌이 모양을 이룬다. 그런데 이 그림의 원은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제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도형은 ⓐ크고 작은 원의 순차적인 집합에 불과하다. 일종의 시각적 중력 혹은 관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나 관심, 흥미에 따라 사물의 상을 ㉡잡아당겨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우 낯설거나 순간적으로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미지를 보면 그것과 유사한,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사물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보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물을 보든지 우리는 늘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 회화가 보여주는 [일루전(illusion)], 곧 환영(幻影)도 이런 오류의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림이란 평면 위에 안료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단순한 색의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되어 인지된다. 색깔의 조합이 특별한 환영을 창조하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뭔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풍경이 느껴진다고 말한 어느 일반인의 촌평은 이런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환영을 창조해 내는 현상'은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 대상을 재현할 때 더욱 증폭된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집단 실험으로 '바틀릿(Bartlett)의 릴레이 그림'이라는 것이 있다. 원본 그림을 기억에 의해 릴레이식으로 그리게 하는 실험인데, 실험 결과를 보면 ⓓ마지막 그림은 원본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 이 실험은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본 것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왜곡과 착각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것으로 이미지를 변형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눈앞의 대상을 물리적·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관성과 내면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따라 능동적·심리적으로 본다. 사실 옛날부터 많은 미술가들은 인간의 이런 시각적 특징과 잠재력을 의식해 왔으며, 감상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구도나 색채, 형태 등에서 표현하는 기술을 발달시켜왔다. 물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를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의식했든 아니든 화가가 표현한 형태와 색채는 그 배면에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효과를 감상자에게 전달한다. 가령 우리가 보는 단순한 수평선이나 수직선도 우리들에게 ⓔ들판이나 나무를 연상시킨다. 그런 면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런 자극들에 반응하면서 살펴보는 능동적·심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즉 우리의 눈과 마음의 관계를 의식하며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3. 위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② 사물의 이미지를 왜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가?
③ 미술 작품과 인간 심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④ 작가는 감상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⑤ 변형된 이미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 실제 모습으로 인지되는가?

34. 위 글로 볼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술 작품을 볼 때는 _____

① 작품이 만들어 내는 환영을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② 작품 속에 나타난 일루전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가며 분석해야 한다.
③ 작품에 나타난 구도, 색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작가의 의도를 수용해야 한다.
④ 작가의 의도를 살펴가며 감상자가 능동적·심리적으로 반응하며 감상해야 한다.
⑤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감상해야 한다.

35. 위 글을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시각적 정보가 부족했다.
② 사물을 물리적으로 보았다.
③ 시각적 중력에 빠져 버렸다.
④ 사물을 중립적으로 파악했다.
⑤ 사물을 기계적으로 바라보았다.

3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②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③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④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37. ⓐ~ⓔ 중, [일루전(illus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　　일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맸는데
耗盡田中禾黍爲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이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을 뜯어 먹이며 개울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일하던 벗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는고. <2장>

[A]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는 피는 모가 곱구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구나.
아마도 하느님 너희 만들 때에 나를 위해 만드셨네. <7장>
- 위백규, 농가(農歌) -

(다)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 서쪽 하늘을 가리키니
아침 저녁이 선선하여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이 익기를 재촉하니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공이 나타나는구나.
백곡에 이삭 패고 곡식알이 들어 고개 숙여
서풍에 익는 빛은 ⓒ누런 구름이 이는 듯하다.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같은 고추 열매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볕이 명랑하다.
안팎 마당 닦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바구니에 ⓓ수수이삭 콩 가지요.
나무꾼 돌아올 때 ⓔ머루다래 산열매라.
뒷동산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알밤은 모아 말려서 필요한 때 쓰게 하소.
명주를 끊어 내어 가을볕에 표백하고
남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로구나.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마르고 재어서 자녀의 혼수하세. (하략)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나)는 풍경 묘사에 이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 (다)에는 검소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③ (나), (다)는 사계절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④ (가), (나)에 비해 (다)는 권유하는 어투로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39. ⓐ~ⓔ 중, 힘들인 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40. (가)와 <보기>의 시가 창작 동기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때, 두 작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홰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홰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8 -

① 자연물을 적절히 활용해야겠어.
② 부정적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해야지.
③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이끌어 가야지.
④ 직설적 방법보다는 우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지.
⑤ 의미상 대립되는 소재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게 좋겠어.

41. (나)의 [A]를 모방하여 쓴 글 중,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A]에 나타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할 것
○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어조를 유지할 것

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말없이 함께 했던 너
아무리 힘들어도 투정 한 번 안 했었지
오늘 따라 너의 모습 가슴에 사무치는구나.

② 얼었던 땅은 녹고 여린 새싹 돋아나
그 싹이 자라고 자라 무성한 녹음 드리웠더니
어느새 단풍 되어 한 잎 두 잎 지고 있네.

③ 거름 내고 김 매다 보니 하루해가 훌쩍
여름 내 그을린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기쁜 열매 꿈꾸며 가벼이 넘어가는 언덕길

④ 흰 새는 높은 가지에서 쌍쌍이 지저귀고
붉은 잉어는 연못에서 무리 지어 노니는데
석양을 뒤로하고 홀로 걷는 내 그림자

⑤ 하얀 이 하나 둘 나고 까만 머리 짙어가네.
옹알대던 모습 가고 걸음마로 다가오니
자라는 네 모습에 웃음꽃이 피는구나.

42. (다)를 심화 감상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영수 : 읽을 때 일정한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리듬감을 주는 작품을 더 찾아 봐야겠어.
② 철호 : 당대 농촌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는데,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당시의 농촌의 모습을 더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③ 하나 : 절기를 언급한 다음 구체적인 농사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이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④ 혜인 : 바쁘게 돌아가는 농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고된 노동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더 조사해 봐야겠어.
⑤ 태영 : 당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민들의 삶이 과연 그렇게 태평스럽기만 했는지 의심이 들어. 서민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도 찾아봐야겠어.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채봉은 평양성 김 진사의 딸로, 꽃구경을 갔다가 서생인 장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된다. 필성의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둘의 결혼을 승낙 받게 되는데 김 진사는 서울 사는 세도가 허 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며 그의 딸을 허 판서의 애첩으로 들여보내기로 약속하고 평양으로 내려온다.

"무엇이 그토록 좋아서 춤을 춘단 말입니까?"

"우선 허 판서 주선으로 과천 현감을 할 테지. 이제 채봉이가 그리로 들어가면 감(監)도 있고, 대신도 있은 즉 그 때엔 정경부인은 갈 데 없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 갑시다."

이씨 부인도 그 소리에는 귀가 솔깃하니,

"진사님께서도 기어코 하려고 드시면 전들 어떻게 하겠나이까만, 애기가 즐겨 들을지가 걱정이옵니다."

이 때 채봉이는 추향을 데리고 앉아서 열녀전을 보다가 부친의 음성을 듣자, 추향을 데리고 나오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기의 혼사에 대한 말이라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역력히 들은 다음 이야기가 끝남을 기다려 아버지 앞에 나와 김 진사에게 날아갈 듯 절을 하더니

"아버님 먼 길에 안녕히 다녀오셨사오니까?"

김 진사는 채봉을 귀엽게 여겨서 채봉의 등을 어루만지며,

"오, 잘 있었느냐? 그래 글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 솜씨도 더 익히었느냐?"

그러면서 이씨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여보, 참말 애기는 이제는 침선 같은 것은 배워도 소용이 없구료. 침모가 다 해다 바칠 테니 말이오."

김 진사는 다시 채봉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아가,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아비 어미 부끄러워 말고 네 소원대로 말해 봐라."

채봉은 배운 바 학문도 있고, 김 진사 내외의 하는 말도 들은 바 있는지라 서슴지 않고 대답하더라.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원치 않사오니이다."

"허허, 네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만, 세상에 더한 호강은 없느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이씨 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렇던 저렇던 우선 방으로 드십시오. 마루에서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까?"

"들어갑시다. 아가 넌 네 방으로 가거라."

하고 채봉을 초당으로 내보내고 두 내외는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느라 부산하더라.

채봉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추향을 보고 말하기를,

"추향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글쎄올습니다. 진사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실 것 같지 않은데, 마님께서 솔깃해하시니요."

채봉은 묵묵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혼자 중얼거리더라.

"박명한 채봉이 이제부터 무한한 풍상을 겪으리로다."

하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루루 흘리니, 추향은 이 모양을 보고 채봉을 위로하더라.

"아가씨, 아가씨, 우지 마셔요. 어찌됐건 간에 좋은 경사인데 왜 우시오니까?"

이 말을 들은 채봉은 소리쳐 꾸짖더라.

[A] "발칙한 것, 네가 어찌 내 귀에 그런 말을 들린단 말이냐? 이게 어찌 경사냐?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내 말을 들어 봐라. 옛 성현의 말씀이 '사람을 믿지 아니할진대 들이지 마라'하였으니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누구에게든 한 번 허락한 다음에야 다시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너도 생각해 봐라. 전날 후원에서의 일은 네가 다 소개한 일인데 내가 어찌 딴 마음을 먹는단 말이냐?"

"아가씨의 뜻은 그러하오나 부모가 하시는 일을 자손된 도리에 어찌 거역을 한단 말씀이오니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정한 일이 있으면 비록 천자의 위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데 부모님께서 어찌 하신단 말이냐?"

하고 추향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 한참 속삭이더니,

"추향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던지 가다가 중로(中路)에서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추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하시면 진사님과 마님께서는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가씨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구어체로 서민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등장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③ 역순행적인 구성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④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과장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44. 위 글에 나타난 채봉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u>먼</u> 것은? [1점]

①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
② 자신의 사리 판단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려고 한다.
③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에 대해 서글퍼하고 있다.
④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소신껏 행동하고자 한다.
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45. 위 글을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김 진사의 행동을 통해 당시 타락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군.
② 채봉이 겪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김 진사의 이기심에 있다고 볼 수 있군.
③ 채봉과 추향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신분상 차이를 짐작할 수 있군.
④ 이씨 부인은 채봉이 겪는 갈등 상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⑤ 추향은 채봉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도덕적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군.

46.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②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③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④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어 비아냥거리고 있다.
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47. <보기>의 관점에서 채봉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효자는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운을 낮추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간(諫)하고, 비록 종아리를 맞아 피가 흐를지라도 공경과 효심을 일으켜 그 부모를 잘못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해야 한다.

① 문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부모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여라.
② 네 부모의 뜻이 비록 잘못되었으나 모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 뜻을 받들어 묵묵히 따라라.
③ 감정적으로 섣불리 행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하여라.
④ 부모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성급히 행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⑤ 부모의 뜻이 의리를 해치는 것이니 조급하게 행하지 말고 정성껏 이치를 아뢰나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혼자라도 의를 좇아 행하여라.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말의 어순은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앞에 오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담은 주절이 뒤에 놓이는 미괄형 문장 구조 유형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인구어(印歐語)와는 반대되는 특성이다. 이러한 문장의 어순 관계 유형은 문단이나 긴 글의 구조 유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우리의 글에는 결론적인 서술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미괄식이 많다. 그에 비하여 서양 글에서는 두괄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의 이러한 미괄식 언어 표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순리적인 사고 유형을 낳는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하여 가는 자연스런 접근 의식은 이런 표현과 연관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런 미괄적 언어 표현은 절정감을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주변적인 것을 서술하면서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수법은 절정감을 일으키는 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거절이나 부정의 표현 등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표현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충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대화의 분위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의식을 낳게 한다. 중요한 내용이 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남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요지를 파악하게 만든다.

(나) 우리말은 필요한 말만 나타내고 웬만한 말은 생략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아주 짧은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문장의 형식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있다. 가령,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복남이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와 같이 주어 등을 다 갖추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게 들리겠는가? 이런 ㉡생략 현상은 인구어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들 언어에서는 상황이야 어떻든 대부분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를 갖추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이런 생략 현상은 '점의 논리'라는 사고 유형을 이끌어 낸다. 점의 논리란 문장이나 글의 표현에서 되도록 많은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징검다리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의 논리는 서양말에서 볼 수 있는 '선의 논리'와 대조를 이룬다. 서양말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가 다 갖추어지는 선적 연결을 보인다. 그 중 일부라도 잘라 버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통 ⓒ점과 점이 이어져서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점의 논리가 가진 장점은 첫째, 말의 ⓓ함축미나 은근한 맛을 자아내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말과 말 사이가 이어지지 않고 적절히 끊어지기 때문에 여운이 남고 농축이 서려서 오히려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또한 죽도록 피하는 것이 우리이다. 우리의 민족성으로 알려진 은근과 끈기라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의 논리와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점의 논리는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감성적 성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점이란 본시 선을 이룬다기보다는 여기 저기 흩어져서 ⓔ여러 모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셋째, 우리 겨레가 아름다운 정서와 다른 시적 감흥을 지닌 것도 이런 점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산문이 선적인 것이라면 시는 언어의 절약으로 풍기는 운율과 함께 함축미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48. (가), (나)의 기본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언어는 다른 언어에 영향을 준다.
② 언어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③ 언어는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가 정해져 있다.
④ 언어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
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49.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단다.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나도 어렵기 때문이야.
② 나 오늘 시간 여유가 생겼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등산 약속이 취소되었거든.
③ 그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야. 배우의 연기도 뛰어나고 배경 음악도 정말 멋있었어.
④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야.
⑤ 베토벤의 교향곡은 매우 웅장한 느낌이지.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은 밝고 명랑한 느낌이야.

50. ⓐ~ⓔ 중, ㉡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1. [A]를 [B]로 바꾸어 써 보았다. (나)를 바탕으로 달라진 점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청산(靑山)은 저절로 푸르고 강물도 저절로 흘러간다.
모든 자연물이 그런 것처럼 나도 순리대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서서히 늙어 가고 싶다.

[B]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 절로 나도 절로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① 말과 말 사이가 이어져 있다.
② 부드러운 감흥을 느낄 수 있다.
③ 점의 논리로 바뀌어 표현되었다.
④ 언어의 절약으로 운율을 살렸다.
⑤ 깊은 맛을 자아내며 여운을 남겼다.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체성이란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여해 주는 의미 체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거기서 얻어지는 소속감은 개개인의 안정된 삶과 사회적 통합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그런데 글로벌(Global)한 세계가 전개됨에 따라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나 집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람, 상품, 정보 등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일정한 사회적, 지리적 경계로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적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5천 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이어왔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 분규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7세기에 이미 현재의 지리적인 경계를 가진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고려 시대에는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했다. 특히 일제 시대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통감하면서 민족적 주체를 자각하였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저항적인 민족주의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성장을 체험하면서 국민적 정체성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등장은 세대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비슷한 정서를 손쉽게 공유하게 만들었고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에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발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했다.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문화적 표현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 부정합(不整合)속에서 과소비와 향락 문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서구적 근대화를 주창하던 1960년대에는 의식적인 척결 대상이었고, 1970년대에는 일부 대학생들의 문화 운동의 주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전통이요 민족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그것은 사회 운동의 주요한 정서로 자리잡았다. 마당놀이가 현대판으로 번안되어 흥행을 일으키고 민속 씨름이 프로 스포츠로 '재발견'되면서 뚜렷한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영화 <서편제>가 불러일으킨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 라는 믿음,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의 출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애정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듯 민족과 국가를 근거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인의 집단 의식과 정서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그 동안 눈부신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효과적인 기제가 되었고 급속한 사회 변동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어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이 새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그동안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의 내용을 따져보고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은? [1점]

① 반론을 예상하면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② 대상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논지를 이끌고 있다.
③ 유사한 사례를 나열하여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다.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상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⑤ 문제점을 부각시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3. 위 글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필자가 중점적으로 밝힌 것은?

① 정체성의 형성 시기와 배경은 무엇인가?
② 정체성의 시대적 형성 과정과 그 역할은 무엇인가?
③ 정체성은 경제와 문화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④ 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민족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⑤ 정체성은 전통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5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1점]

① 매체는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② 정체성은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③ 정체성은 민족간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④ 전통 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⑤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다.

5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글을 접했을 때, 밑줄 친 내용에 대해 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영화 <서편제>를 보고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공동경비구역>이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두고는 한국적인 미와 정서를 논하지는 않는다. 이 영화 모두 한국인이 만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이야기이다. 전통적 정서와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한국적 정체성과 연결 지을 수 있고, 현대의 문제나 정서를 담은 작품을 통해서는 정체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성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① 정체성은 얼마나 전통을 잘 계승하느냐가 중요하다.
② 정체성은 시대적 관심이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③ 정체성은 잊혀진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④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이 필요하다.

56.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한국적 정체성의 정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체성은 때로는 유리하게도 작용하지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의 정체성도 이제는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혀 낯선 '타자(他者)'를 그 나름대로 이해하고 '우리'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① 정환 :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체성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② 기현 :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테두리에 안주해서는 세계화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③ 천수 : '우리'라는 테두리는 '타자'라는 테두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④ 을용 :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의식의 강화가 필요해.
⑤ 운재 : 문화적 교류가 빈번한 현실에서 우리는 개방적인 자세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사께서 끝까지 벼슬길에 나오지 않으시니 무엇 때문입니까? 산림 속에 깊이 숨어 사시는 데도 추천하였으니 남들이 몰라주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진 임금께서 참다운 인재를 목마르게 구하시니 시대가 적당치 않다는 논리도 맞지 않을 듯합니다. 집사께서 문을 닫고 가만히 들어앉아서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닦고 뜻을 기르면, 얻는 것이 크고 쌓이는 것도 두터울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와 이용한다면 어딜 가나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칠조개*처럼 벼슬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는 집사의 행위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사를 의심할 수야 있겠습니까? 집사의 처지에서도 반드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이 가난하고 또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아 국록(國祿)을 타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견식(見識)이 부족하여 그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였을 뿐이고, 몸은 늘 허망한 곳에 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추천서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며, 복잡한 현실에서 한가로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부끄러운 소행을 깨닫고 가던 길을 바꾸어 만년에 할 일을 찾으려 하나, 뜻과 생각이 모두 쇠퇴하고 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성인들의 경전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평소에 원하던 일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험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얻는 바가 있어 한평생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칠조개(漆雕開) :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벼슬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공자의 제자.

-이황이 조식에게-

(나) 그대는 보낸 글에서 "아직 배움을 이루지 못한 채 섣불리 나와서 벼슬 길이 본뜻을 빼앗을까 염려되니, 돌아가서 끝까지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옛 사람들도 얻기 어려웠던 바요, 오늘날도 보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 앞에서 깊이 옷깃을 여미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대를 생각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옛 의리를 좇아갈 수 있는 까닭은, 저의 병이 깊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기에 핑계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대는 처신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대가 물으셨으니 제 생각을 대략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훌륭한 기상과 동량(棟梁)*의 재질을 갖추어, 벼슬길에 나오기 전부터 명성이 자자했고, 벼슬길에 나오자 온 나라의 관심이 그대에게 쏠렸습니다. 먼 길 떠나는 수레가 막 구르기 시작했고, 몸에 저와 같은 병도 없는데,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숨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뜻 그대를 놓아주겠습니까? 세상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세상을 버리려 한다면, 버리려 하면 할

수록 더욱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병든 자처럼 자주 사직하기를 빌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책망도 병든 저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제가 그대를 생각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벼슬길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학문에 뜻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고, 도(道)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량(棟梁) : 기둥과 들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황이 기대승에게-

57. (가), (나)에서 상대방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대적 상황을 부각시켜 의견 수용을 권유하고 있다.
②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완곡하게 설득하고 있다.
④ 설득과 회유를 적절히 병행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5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조식은 정치보다는 학문의 길을 택하고 있다.
② 조식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 조식은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④ 기대승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⑤ 기대승은 배움을 완성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5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① 정부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② 민수는 며칠을 두고 끙끙 앓고 있다.
③ 기계는 세워 두면 녹슬어지기 마련이다.
④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⑤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에게 혐의를 두면 안 된다.

60.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필자의 삶의 태도를 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당시에 행하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서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마음 품지 않으리
- 이황, 도산십이곡 중 10곡 -

① 학문 수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라도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해.
② 유학자라면 조정에 나아가 충성을 다해야 하고, 벼슬에서 벗어나면 학문 완성을 위해 정진해야 해.
③ 학문을 완성시키는 것은 삶의 현장이야. 결국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벼슬길과 학문의 길을 병행해야 해.
④ 유학자로서 벼슬길을 외면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벼슬길을 위해 학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해
⑤ 유학자가 가야 할 길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야. 임금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가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해.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